

박사학위 논문

18세기 사족층 가사 연구

김 현 식

2011년 8월 고전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권두환 선생님

본고는 18세기 사족층 가사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18세기는 학문, 문학, 예술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행기였다. 사족들은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가사를 통해서 ‘현재 있는 곳’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들은 전대 가사의 성격을 계승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면서 수많은 가사를 창작했다. 따라서 18세기 사족층 가사의 실상과 지향점을 살펴서, 그 작품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가사적 위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사족층이 창작한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단서로 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18세기에 가사를 창작한 사족층은 어떤 부류인가, 그들이 가사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대상은 무엇인가, 그들은 전대 가사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는가, 이 시기에 가사작품이 양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18세기 사족층 가사는 시가사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이 해소된다면, 18세기 사족층 가사의 특징과 의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논의를 전개했다.

우선 18세기에 가사를 창작한 사족층은 관료 경험이 있는 작가와 관료 경험이 없는 작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관료 출신 작가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부류, 부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류

등이었다. 유배지에 있든, 부임지에 있든 이들은 임금이 있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관료 경험이 없는 작가는 경·향의 분기로 인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궁벽한 향촌에서 일생을 살아가며 사족으로서 자의식을 품고 있는 인사들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소외된 기호지방 남인들, 송유역불정책으로 핍박받던 불교계의 재가불자(在家佛者) 중에도 가사를 창작한 인사가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8세기에 가사를 창작했던 사족층은 대부분 소외의식을 겪어야 했던 인사들이었다. 소외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가사의 소재를 찾아 노래함으로써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다. 예컨대, 유배지에 있는 경우에는 절제된 감정으로 묵묵히 감내하는 것보다는 유배 경험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여 비감을 고조시키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면적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부임지에서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위정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한편, 향촌의 사족층 역시 일상적인 생활공간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족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가문의식을 지향했다. 또 비윤리적인 행위가 자행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윤리적 교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부조리한 현실의 모순에는 신랄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면서 사족으로서의 존재감을 표출했다.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탐승을 한 경우에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흥취를 노래하기도 했다.

일상적 소재에 대한 관심은 특정 대상이나 사건으로도 확대되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사랑하는 임, 가족의 경사, 국가적 행사의 동참 등을 통해서 개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가사작품이 창작되었다. 기호지방 남인들과 재가불자는 천주교를 소개하고 불교 대중화를 위해, 각각 경전을 연해하여 노래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현실을 구원하고자 했다.

18세기 사족층은 '현재 있는 곳'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기존 담론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유배 경험의 사실적인 재현은 연군가사의 연기풍을 퇴조시켰다. 또한 산수의 승경을 탐승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뚜렷해지고, 실제 풍경에 대한 고양된 흥취를 노래한 작품들이 창작되면서, 환유(宦遊)와 탐승의 성격이 섞여 있던 기행가사에서 순수한 탐승가사로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상적 소재를 재발견하여 개인의 내면세계를 가사의 담론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작품들도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은 현실비판이나 절대원리의 대안 모색이라는 담론으로 이어져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8세기에 이와 같이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족층 가사 작품이 양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18세기 가사의 주된 작가층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소외된 채, 향촌이라는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자기존재를 확인하며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 가사를 창작한 사족들이라는 점과 가사의 문화적 성격이 상층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표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시기 가사의 양적 증가는 작가층의 성격과 가사갈래의 향유 성격이 서로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으로 파악했다.

이와 같이 서론에 제기한 몇몇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18세기 사족층 가사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했다. 18세기 사족층이 창작한 가사는 전대 가사의 담론을 지속하면서도 변화를 이루고, 또 새로운 담론을 개척하여 다음 시기를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사족층 가사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교량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